

정찬주 장편역사소설

<깨달음의 빛, 청자>2부 48(최종회)

## 비색청자의 잠

최항이 교정별감에 오른 지 7년째 되는 봄날이었다. 강도에 불던 삭풍이 멎고 남쪽에서 따듯한 마파람이 불어왔다. 그러나 강도성 안은 봄바람과 달리 매서운 기운이 횡횡했다. 몽골 황제는 사신을 보내 개경으로 환도를 강요했다. 최항을 따르는 무신들의 항몽 의지를 꺾으려고 강하게 압박했다.

고종39년부터였다. 몽골의 사신 다가(多可)가 들어와서는 고종이 육지로 나와 친히 사신을 맞으라고 요구했다. 대부분의 신하들이 다가의 요구를 들어주자고 건의했지만 최항은 단호히 거부했다. 대신 신안공 왕전(王佺)을 육지로 보내 맞이하게 했다. 다음해에도 마찬가지로였다. 몽골은 야굴(也窟)과 대군을 보내 이전보다 협박 강도를 높여 고종에게 개경으로 환도하라고 겁박했다. 영녕공 왕준(王綽)과 신하들이 태자를 보내어 몽골군을 무마시키자고 건의했지만 최항은 끝까지 거절했다. 최항은 몽골 대군과 싸우기를 마다하지 않은 삼별초의 낭장 배중손과 김통정을 믿었다. 따라서 그들은 다른 지휘관보다 빨리 정7품의 별장에서 정6품의 낭장으로 승진했다.

최항은 교정도감 별실로 김준을 불렀다. 김준(金俊)은 개경에서 최충현의 가노 아들로 태어났다가 최우 때 궁술과 승마에 능하여 야별초 사병으로 발탁된 사람이었다.

“김 별장은 강화천도를 어찌 생각하는가?”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이 가장 좋은 계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준은 몽골의 환도요구를 들어주면서 싸우지 않는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물론 김준뿐만 아니라 대부분 신하들의 생각도 같았다.

“내가 별감이 될 때 나를 지켜준 그대의 공을 알기에 별장으로 승진시켜주었네.”

“별감나리. 은혜를 잊지 않겠습니다.”

최항이 도정별감 자리에 오르려고 할 때 김준은 이공주, 최양백과 함께 최항을 적극 호위해 주었던 것이다. 그런데 세 사람 모두 가노 출신이었다. 그러나 최항은 출신성분에 개의치 않고 삼인방 모두에게 별장이란 무관 벼슬을 선사했다. 그것도 모자란 것 같아서 김준의 동생 김승준에게는 종9품의 대정이란 벼슬을 주었다.

“김 별장은 선친 때와 같이 내 심복이 되어야 하네.”

“어찌 모르겠습니까?”

“배중손이나 김통정 같은 장수가 되라는 말이네.”

“별감 나리, 명심하겠습니다.”

“자네는 가노의 아들이고, 나는 기생의 아들이네. 허나 그것이 어찌 부끄러울 것인가. 내가 월남사에 있을 때 어느 <불경>에서 보았네. 신분은 평등할 뿐 고하가 없다고 말이네. 나는 선친의 유지를 받들어 몽골군을 물리치고 평등한 세상을 만들고 싶네.”

“허나 신하들은 몸에서 피가 날 만큼 신분을 따지웁니다. 현실을 잘 보셔야 하웁니다.”

“나는 앞으로 내 눈앞에 그런 신하가 있다면 용서치 않을 것이네. 가차 없이 귀양 보내거나 중죄로 다스릴 것이네. 도강 감무 박장원이라고 아는가?”

“예. 무신들 중에서는 배짱이 좋았습니다.”

“내가 월남사에 있을 때 내 출생을 도강 사람들에게 알리고 나를 무시했던 사람이었네.”

“예, 그가 실수한 것이옵니다.”

최항은 도정별감이 되자마자 도강현 감무 박장원과 그의 친구인 보주부사 조염우를 섬으로 귀양 보내버렸다. 그런데 두 사람과 친하게 지내던 시어사 이선이 경상도 안찰사에 임명되었을 때였다. 이선은 유배 중인 두 사람과 현령 권신유를 불러 잔치를 벌였다. 이에 한 승려가 “이선이 권신유, 조염우, 박장원을 불러 반란을 모의한다”고 고변하기에 이르렀고, 최항은 심문하지도 않고 그들을 포박하여 강에 던져 죽여 버렸다.

최항은 김준의 태도를 넌지시 떠보고는 차츰 멀리했다. 그는 고분고분하지 않았다. 훗날 빈틈이 생기면 자신에게 덤벼들 무인 같았다. 대신 김준과 동지처럼 늘 함께 어울려 다니던 최양백을 가까이 했다. 그런 까닭에 사돈지간인 김준과 최양백은 점점 소원해졌다.

다음해 봄.

강도에 만발했던 복사꽃이 허망하게 낙화하는 봄이었다. 복사꽃은 비바람에 피었다가 비바람에 지고 있었다. 오십을 눈앞에 둔 최항은 지난해 가을 갑자기 병이 들었다. 술병이 아니라 병석에서 일어나지도 못할 정도의 중병이었다. 애주가였던 최항은 이제 더 이상 술을 마실 수 없었다. 그래도 술향아리 같은 청자동화연꽃무늬주전자는 최항을 위로해주었다.

고종은 그를 위해 감옥에 갇힌 죄수들을 석방했다. 그런 덕분인지 잠시 건강이 좋아져 비바람이 몰아치는 날, 그는 사저 정자에 올라 멀리 흐르는 강을 바라보면서 시를 지었다.

복사꽃 향기는 수천 집을 감쌌는데  
비단 휘장 향취는 십 리에 빗졌구나  
난데없는 미친바람 좋은 자리에 불어와  
붉은 꽃잎 마구 몰아 긴 강을 지나가네.

桃花香裏幾千家  
錦幄氤氳十里斜  
無賴狂風吹好事  
亂驅紅雨過長河



최항의 눈에는 봄날 비바람이 미친바람으로 보였다. 강 쪽으로 붉게  
흘날리는 복사꽃잎이 자신의 지난 8년 같았다. 돌아보니 선정을 펼치고  
자 진력했지만 많은 신하들을 죽인 것도 사실이었다. 자신을 기생 자식  
이라고 경원했던 신하들이 대부분이었다. 물론 불행하게도 죄 없이 무  
고로 죽은 신하들도 있었다.

주숙과 장군 김효정 등은 귀양 가는 도중에 죽었으며, 장군 최종필, 나주 부사 이균 등은 유배를 보냈다. 자신에게 대항했던 김약선의 아들 김미(金敍)는 귀양 보내고, 그를 도왔다는 이유로 계모 대씨(大氏)는 독살 당했다. 또, 그 일당인 추밀원지사 민희와 추밀원부사 김경손은 유배지로 가다가 죽었다. 이어 좌승선 최환, 장군 김안, 지유 정홍유 등을 귀양 보내고, 아버지 최우의 처남인 참지정사 정안(鄭晏)까지 죽였다.

그런데 그들이 사라지면 평등한 세상이 될 줄 알았지만 그게 아니었다. 세상의 차별은 그대로였다. 결국 원한이 원한만 낳은 셈이었다. 네 구절의 시를 짓고 병석으로 돌아온 최항은 결국 눈을 감고 말았다.

청자 애호가였던 최항이 죽고 나자 탐진의 청자도 알게 모르게 쇠락했다. 수요가 없으니 당연한 결과였다. 백련사, 월남사, 무위사, 쌍계사, 성문사, 용혈암, 고성암 등에서도 청자 주문은 더 이상 없었다. 탐진의 어느 절이든 청자정병, 청자다기, 청자사발들이 승려들 숫자보다 더 많았던 것이다. 도공들은 몇몇 사람만 남고 대부분 농사꾼이나 어부가 되어 이웃 고을로 흩어졌다. 새로 부임한 도강현 감무도 더 이상 청자생산을 채근하지 않았다.

전중내급사(殿中內給事) 최의(崔堧)는 아버지 최항이 죽자 도정별감에 올랐다. 고종이 대장군 바로 밑의 차장군(借將軍)에 제수하고 교정별감을 승계하도록 했던 것이다. 차장군을 임명한 것은 교정별감은 장군만 될 수 있기 때문이었다.

최의는 교정도감의 창고곡식을 풀어 배고픈 백성을 구하고, 자신의 창고문도 열어 하급 군사와 양민들을 진휼했다. 그러나 얼마 뒤 조정 대신들과 대립하면서 정사를 어지럽히기 시작했다. 장군 변식, 낭장 안홍민 등을 강화수획사(江華收獲使)로 삼아 약탈했고, 아버지 최항이 신임했던 이공주에게 낭장을 주고 최양백 등만을 의지했으며, 때마침 기근

까지 들어 민심은 강도 궁궐을 떠났다. 이에 때만 기다렸던 별장 김준, 도령낭장 임연, 대사성 유경 등이 정변을 일으켜 야별초 군사를 이끌고 그의 사저로 들이닥쳐 무참히 살해했다. 최의가 교정별감이 된 지 1년 만이었다. 이로써 4대 60여 년간에 걸친 최씨 무신정권은 끝났다. 그러나 무신정권이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니었다. 김준은 최우와 최항과의 의리 때문에 자신의 미지근한 태도를 바꾸어 개경환도를 반대했다. 한때 동지였던 임연을 설득했다.

“원나라 간섭이 불을 보듯 뻔하오. 그런데 어찌 개경환도를 한다는 말이오.”

“강도에 사는 우리야 상관없지만 육지 백성들의 고통은 이제 한계에 이르렀소. 그러니 개경환도를 하여 걸으로는 원나라를 섬기는 체하면서 백성들을 살리자는 것이 내 주장이오.”

“원나라 세조는 ‘몽골은 고려의 풍속을 고치도록 강요하지 않겠다’고 약속했소.”

원 세조가 불개토풍(不改土風)을 약속했던바 그 내용은 다음과 같았다.

옷과 머리에 쓰는 관은 고려의 풍속에 따라 바꿀 필요가 없다.

사신은 오직 원나라 조정이 보내는 것 이외에 모두 금지한다.

개경환도는 고려 조정에서 시간을 조절할 수 있다.

압록강 둔전과 군대는 가을에 철수한다.

전에 보낸 다루가치(지방 감독관)는 모두 철수한다.

몽고에 자원해 머무른 사람들을 조사하여 돌려보낸다.

“개경환도는 몽골에 항복하는 것이나 다름없는 치욕이니 나는 강도를

지키겠소,”

김준과 임연의 협상은 결렬되고 말았다. 김준이 개경환도 쪽에 편을 들었다가 태도를 바꾸었기 때문이었다. 할 수 없이 임연은 개경환도를 거부하던 김준을 원종9년(1268) 12월에 그의 아들 임유무와 함께 살해해버렸다.

안하무인이 된 임연은 다음해 6월 삼별초와 육번도방을 인솔하고 원종의 아우인 안경공 왕창(王曄)을 왕으로 옹립하고 원종은 별궁에 유폐시켰다. 그리고 그의 아들 임유무가 교정별감이 되었다. 이에 태자(충렬왕)가 급히 원나라에 이 사실을 알렸고. 다급해진 임연은 같은 해 11월 원종을 복위시켰다. 이후 원종의 밀명을 받은 송송례, 홍규 등에 의해 무신정권의 마지막 집정자인 임유무가 살해당함으로써, 100년간 지속된 무신정권은 막을 내렸다. 이는 왕정복구와 개경환도를 뜻했다.

원나라 세조는 불개토폡 약속은 보장해 주었지만 황제국에서 사용하는 명칭들을 모두 엄금시켰다. 원종 이후의 왕들은 종(宗)이나 조(祖) 같은 묘호(廟號)를 사용할 수 없으며 시호(諡號)의 앞 글자에 원나라에 대한 충성하겠다는 ‘충(忠)’자를 달아야 하고, 황제가 본인을 지칭하는 ‘짐’은 ‘고’ 또는 ‘과인’으로, 황제를 부르는 칭호인 ‘폐하’는 ‘전하’로, 황제의 뒤를 이을 아들인 ‘태자’는 ‘세자’로, 황제의 명령을 담은 글인 ‘성지’는 ‘왕지’로 명칭들을 격하시켰다. 최우, 최항, 최의, 김준이 우려했던 대로 원나라의 속국처럼 돼버렸던 것이다.

원종11년(1270). 개경 환도 후 원종은 원 세조의 요구에 따라 삼별초를 해산하라는 왕명을 내렸다.

‘삼별초는 공(功)이 있지만 과(過)가 컸다. 무신들을 지켰던 삼별초는 이제 수명을 다했다. 삼별초는 즉시 해산하라!’

그러나 육번도방 소속이었던 장군 배중손은 야별초 단위부대장인 지유

(指諭)들을 포섭하여 6월 1일 결사항전을 결의하고 영녕궁 왕준(王綽)의 형인 승화후(承化侯) 왕온(王濫)을 왕으로 추대했다. 또 반몽세력을 규합해 6월 3일 강화도에서 전라도 진도로 1천여 척의 배를 띄워 남진했다. 원나라 속국이 되기를 자청한 개경환도 세력에 맞섰다. 배중손은 진도 용장산에 산성을 구축하고 용장사를 개조하여 궁궐과 관부를 지었다. 새로운 도성과 왕온의 궁을 조성한 것이었다. 배중손이 왕궁 별실에 있던 왕온을 찾아와 말했다.

“폐하, 이만 하면 황도(皇都)라고 해도 지나침이 없을 것입니다!”

“장군께서 내 소원을 들어주소요. 반드시 몽골군을 격퇴해주소요.”

“폐하, 진도에 황도가 들어서자 전라도는 물론 경상도의 양민들이 물러들고 있습니다. 개경의 관노들까지 배를 타고 왔습니다. 머잖아 육지의 몽골군을 격퇴할 날이 있을 것입니다.”

“재정과 무기는 충분하오?”

“남진하기 전에 강도의 국고를 압수했고, 금강고(金剛庫)의 창과 칼은 군사들이 다 가져왔습니다. 재정도 바닷길을 지키고 있다가 개경으로 올라가는 세공(稅貢)을 노획하니 넉넉합니다.”

“여기 있는 이 아름다운 찻잔들도 강도에서 가지고 온 것들이오?”

“아닙니다. 야별초 지유가 군사들을 데리고 탐진으로 가서 구해온 것입니다.”

“우리 군사는 어디까지 나가 있소?”

“나주는 물론이고 멀리 전주, 경상도까지 나갔다가 돌아왔습니다.”

“남도가 모두 우리 땅이 되었다니 경하할 만한 일이오.”

배중손은 전라도안찰사(全羅道按察使)에게 백성들의 추수를 독촉하면서 삼별초 무장들을 세금을 징수하는 수획사로 임명하여 육지 연해 고을로 내보냈다. 뿐만 아니라 양민들을 진도 섬으로 이주시키기도 했다.



차츰 연해 고을에서 서남해 연안의 각 섬은 물론 육지의 나주, 전주까지 출병하여 관군을 격파하고 위세를 떨쳤으며, 주현에 격문을 보냈다. ‘모두 왕명을 따르고 별초를 가둔 자는 죄를 줄 것이다.’라고 호령했다. 금주(金州, 김해)의 수령 이주(李柱)는 무서워서 싸우지 않고 도망가기도 했다. 11월에는 장군 이문경(李文京)이 이끄는 삼별초 군사들이 영암부사 김수(金須)와 장군 고여림(高汝霖)이 지키고 있던 탐라까지 점령했다.

왕은 불면증으로 잠을 잘 자지 못했지만 배중손과 함께 있을 때만은 마음이 편했다. 한편, 배중손과 김통정은 개경에서 살 때는 탐진 청자를 구경만 했었는데, 실제로 눈앞에 두고 보니 황홀했다. 배중손은 이문경이 탐라를 점령하고 돌아오자 탐진 청자주전자를 상으로 주었다. 이문경은 감격했다.

“이 귀한 보물이 제 손에 들어오다니 꿈인 것 같습니다.”

“탐진은 가까운 데 있으니 우리도 얼마든지 가질 수 있소. 나는 탐진 향리들이 청자를 가져오면 그냥 받지는 않을 것이요. 반드시 큰 값을 지불할 것이요.”

배중손은 최항의 도정별감 별실에서 보았던 청자주전자와 청자차잔 등을 잊지 못했다. 그때는 별감 정도가 돼야만 탐진 청자를 가질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그게 아니었다. 자신의 별실에서 청자항아리에 술을 담아 부하들을 불러 마실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었다. 더구나 탐진으로 나간 수확사가 탐진 청자를 들고 오기도 하고, 별장을 시켜 주문하면 바로 손에 넣을 수 있었다. 그날 수확사가 도공들에게 곡물 대신 가지고 온 것은 청자베개와 청자향로, 청자의자 등이었다. 청자의자도 최항의 사저 후원에서 보았던 것과 흡사했다.

“별장, 이것이 무엇인지 아는가?”

“받침대 같습니다.”

“그대는 이렇게 귀한 것을 어찌 받침대라고 하는가.”

“무엇이옵니까?”

“의자네, 자, 보게나. 하하하.”

배중손이 청자의자에 앉아서 크게 웃었다.

“개경환도 세력들도 조금 있으면 탐진 청자를 서로 가지려고 경쟁할 것이네. 허나 어렵없는 일이지. 우리가 바닷길을 막고 있지 않은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진도 바닷길을 지키고 있는 한 탐진 청자는 개경으로 올라갈 수 없을 것입니다.”

배중손은 육로가 있다는 사실을 미처 생각지 못했다. 어느 새 탐진 청자는 적은 수량이지만 육로를 이용해 개경으로 비밀리에 올라가곤 했다. 강도에서 인연 맺었던 중간인수자 대정들이 개경으로 들어가 주문했기 때문이었다. 낮은 벼슬아치 대정들 중에서 개경이 고향인 사람들 일부가 환도세력을 따라 들어갔던 것이다.

그런데 청자를 가지고 육로로 올라가는 일은 위험하기 짝이 없었다. 산속에서 도적 떼를 만나기도 하고, 낮선 노포에서 잠을 자다가 도둑을 맞기도 했다. 청자 기물들을 서너 마리의 말에 태워 가지고 올라가면 반쯤은 사라졌다. 험한 길에서 말이 넘어지면 파손도 각오해야 했다.

“나는 앞으로 아무리 값을 올려준다고 해도 육로로는 가지 않을라네.”

“지도 그렇마요. 청자도 청자지만 목심은 하나밖에 읊는 것이지라우.”

“배부른 소리네. 한 번 갖다 오면 큰 부자가 될 수 있는디 어처케 안갈 수 있단 말인가.”

“으쨌든 바닷길이 열려야 현디 은제나 그런 날이 올지 모르겠그만이라우.”

탐진 향리나 도공들이 전해 듣는 소식은 늘 한 발 늦었다. 사실, 진도

바닷길은 열려 있었다. 원종12년(1271) 5월 김방경(金方慶), 홍다구(洪茶丘)와 몽고장군 혼도(忻都) 등이 이끄는 1만 2천 명의 여몽연합군에 의해 진도 용장산성이 함락되었기 때문이었다. 왕이 된 왕은 홍다구의 손에 죽고, 배중손은 전투 중에 전사했다. 따라서 개경으로 올라가는 바닷길의 장애도 없어졌던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잠시일 뿐이었다. 이번에는 왜구들의 준동이 잦아졌다. 왜구들의 항해술이 어느 새 전라도 서남해안까지 들락거릴 만큼 발달했던 것이다.

“삼별초가 탐라로 갔지만 바닷길이 또 위험허대야. 왜구덜 땀시 가리포 가기도 심들다고 형마이.”

“이래 저래 서울로 갈라든 육로 밖에 읊는다 죽어나는 것은 탐진 도공덜이그만.”

안전하지 못해도 육로로 올라갈 수밖에 없는 것이 탐진 도공들의 현실이었다. 개경에서는 예전처럼 또 다시 주문이 오곤 했다. 그래도 청자운반선은 왜구들의 노략질 때문에 오가지 못했다.

한편, 타격을 입은 삼별초는 탐라에서 김통정을 중심으로 전열을 재정비했다. 원나라 세조는 왜국 정벌의 전초기지로 탐라를 중시해 원종13년(1272) 8월 사신을 보내 탐라 공략을 적극적으로 하라고 원종에게 요구했다. 이에 홍다구는 조카 낭장 김찬(金贊)과 이소(李邵) 등을 탐라로 보내 김통정을 회유했다. 그러나 김통정은 김찬을 억류하고 나머지는 다 죽이는 등 완강하게 저항했다.

회유작전이 실패하자, 원종14년(1273) 2월, 파도가 높고 삭풍이 거셌지만 김방경과 혼도, 홍다구의 여몽연합군은 바다를 건너 탐라에 도착했다. 병선 160척, 수륙군 1만 명의 여몽연합군이 탐라의 삼별초를 공격했다. 삼별초는 한 달 동안 목숨을 아끼지 않고 방어했다. 부상을 당

해도 혼만은 꺾이지 않는 고려인 기질의 분투였다. 그러나 중과부적은 어쩔 수 없었다. 장군 김통정은 끝까지 항복하지 않고 깊은 산속으로 들어가 나뭇가지에 목매달았다. 남은 삼별초 군사 1천3백여 명은 부상을 당해 더 저항하지 못하고 붙잡혔다.

이후 충정왕2년(1350).

탐진의 마을들도 탐라의 땅처럼 적막강산이 되었다. 선단 규모가 무려 100척 이상이나 되는 왜구의 침입이 빈번해지면서 경상, 전라, 충청, 경기 연안에서부터 황해도, 평안도 해역까지 그들의 노략질이 들불처럼 번졌다. 세곡을 실은 조운선을 탈취당하기도 했다. 결국 시호 앞에 ‘충(忠)’을 뺀 명군 공민왕은 백성들을 보호하기 위해 해안에서 50리 이내는 살지 말라고 명을 내렸다.

왕명에 의해 탐진과 부령의 도공들은 보다 안전한 곳으로 이주했다. 따라서 청자 가마들도 허망하게 주인을 잃어갔다. 어느새 탐진의 청자 가마들은 더 이상 연기를 피워 올리지 못했다. 천하제일 비색청자는 또 다른 비상을 꿈꾸며 긴 역사의 긴 잠속으로 빠져들고 말았다.

<끝>